고용노동부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26.(목) 09:00 (2026. 11. 26.(목) 석간)

“사람과 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반도체 산업”
김영훈 장관,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들과 근로시간제도 운영 실태 등 현장 의견 청취

고용노동부(장관 김영훈)는 11월 26일(목)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회의실에서 **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들과 간담회**를 개최했다.

그간 **반도체 업계**는 기술개발 단계에 따라 업무량에 차이가 있고, 개발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일정 기간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, **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**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.

이에 고용노동부는 **지난 11월 13일**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을 통해 **산업계의 의견**을 청취하였으며, **이번 간담회**는 **연구개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종사자들**의 경험을 통해 **현장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파악**하여, 초광역특구법 관련 **사회적 대화**에서 현장의 실정이 **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지원**할 계획이다.

김영훈 장관은 “미래의 경쟁력은 현재 일하고 있는 연구개발자의 노력에서 좌우되는 것으로, 지금 그 일자리에서 **일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 곧 미래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**이다”라며, “**연구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확보**하는 것과 **연구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**을 만드는 것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”라고 강조했다.

이어서, “**새로운 제도에 대한 논의**는 원점에서 출발할 수 없고, **지금의 제도가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살펴,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부터 시작**해야 한다”라며, “정부는 **현장의 목소리**를 **세심하게 듣고** 필요한 **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**”라고 밝혔다.

붙임 1. 간담회 개요
2. 장관 모두발언

담당 부서	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한진선 (044-202-7991)
		담당자	사무관	송승민 (044-202-7549)
			사무관	박노완 (044-202-7618)
			주무관	권소현 (044-202-7543)
			주무관	김동환 (044-202-798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1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 간담회 개요

□ 일시: ’26.11.26.(목), 9:00~10:30

□ 장소: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10층 대회의실(성남시 분당)

□ 주요 참석자

○ (정부) ★장관, 노동정책실장, 노동정책국장 등

○ (종사자) 반도체 관련 업체* 연구개발 종사자 10여 명

*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한화세미텍, 엘엑스세미콘, 세메스, 에프에스티, 제우스

□ 간담회 내용: 연구개발 업무 특성 및 근로시간제 관련 의견 청취

□ 세부 일정(안) ※ 모두발언까지 공개

시간		진행 내용	비고
09:00~09:10	10′	■ **참석자 소개** ■ **장관님 모두발언**	
09:10~10:25	75′	■ **간담회** - 연구개발 업무 특성 및 근로시간제 관련 의견 청취	
10:25~10:30	5′	■ **마무리 발언** ■ **폐회**	

붙임 2 | **장관 모두발언** | * 실제 발언은 달라질 수 있음

□ 여러분, 반갑습니다.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.

○ 바쁜 연구개발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
□ 11월 19일은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선 역사적인 날입니다. 이는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뜻깊은 성과입니다.

○ 특히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40% 이상을 차지하며,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.
반도체 산업의 눈부신 성장은
연구개발자를 비롯한 많은 분이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고,
수많은 실험과 검증을 거쳐 성과를 만들어 낸
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.

○ 이 자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여러분이
그간 연구개발 과정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듣고,
미래의 대한민국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
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□ 최근,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
지금의 제도로는 우리 산업과 일자리의 미래를 지키기
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습니다.

ㅇ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가야
우리 산업과 일자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고,
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
ㅇ 우리 산업과 일자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은
결국 그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일에서
시작합니다.

□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과
연구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
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.

ㅇ 연구 종사자들이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
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은
당장의 눈앞이 아닌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
좌우하는 기본 전제가 될 것입니다.

ㅇ 반도체의 기술적 성장을 위해 애쓰는 여러분이
자신의 시간과 삶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
노동시간제도를 고민하는 것은
정부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.

□ 현재 정부와 노사는 「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」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○ 새로운 제도에 대한 논의는
원점에서 출발할 수 없습니다.
지금의 제도가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
제대로 살펴보고,
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부터
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.

○ 연구개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
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여러분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
필요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□ 감사합니다.